

A Study on *Dan*(緞)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Eun-Jin Lee* · Hyo-Sook Cho

Ewha Womans University* · KyungWon University

Confusion of the names and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fabrics handed down is probably because traditional fabrics were named according to unsystematic naming rules during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without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fabrics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Dan*(緞)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as a part of research on fabrics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which is the end of the traditional society and the base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society.

According to *Bal-gui*(불귀) that tell about the use of fabrics in the royal court during the perio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Dan*(緞) occupied 7% of the whole volume of fabrics consumed. This is not a large volume compared to plain weaved fabrics(平織物) or Gauze(摺織物) but should not be neglected considering that *Dan*(緞) was a newly popularized fabrics in the *Joseon* Period and is one of main traditional fabrics at pres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theoretical basis to name *Dan*(緞) remains proper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me, usage, value, length and width of *Dan*(緞) recorded on documents made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The features of *Dan*(緞)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are as follows.

1. The kinds of *Dan*(緞) recorded on documents made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are *Mundan*(紋緞), *Godan*(庫緞), *Gongdan*(貢緞), *Mobondan*(모본단), *Waedan*(倭緞), *Udan*(羽緞), *Jangdan*(장단), *Seolhandan*(설한단), *Yangdan*(양단), *Yanghwadan*(양화단), *Ochaedan*(오채단), *Paengdan*(팽단), *Handan*(한단), *Geumdan*

(금단), *Geumseondan*(금선단) and so on. Among fabrics named *Dan*(緞), were not only silk fabrics but also silk-cotton mixture fabrics, cotton-wool mixture fabrics, cotton fabrics and woolen fabrics.

2. As for the width of silk fabrics found from the analysis of *Tak-ji-jun-jeol*(度支準折), the width of *Udan*(羽緞) was 47cm, that of *Modan*(모단), *Seondan*(縮緞) and *Hwadan*(禾緞) was 56.4cm and that of *Daedan*(大緞) and *Sangsadan*(賞賜緞) was 61.1cm.

3. Comparing the value of each fabric per 10,000cm² in accordance with its texture, *Daedan*(大緞) has the greatest value, *Sa*(紗) has the second, *Daeneung*(大綾) has the third, *Cho*(絹) has the fourth and *Ju*(紬) has the next. Therefore *Dan*(緞) was the most valuable silks at that time. Among them the most valuable *Dan*(緞) was *Udan*(羽緞).

4. When considering the usages of *Dan*(緞), *Dan*(緞) was used for various detailed usages according to their kinds. But it was't mostly used for underwear.

5. Some newly revealed patterns in the case of *Dan*(緞) are as follows. *Byeol-mun*(別紋) was assumed to have symbolize the royal family. The shape of *Byeol-mun*(別紋) originated from the character, *Mot-hwan*(못환). Later, not only *Mot-hwan*(못환) but also all circular patterns such as dragon patterns, phoenix patterns, flower patters and characters, which were used only for the royal family, are considered as *Byeol-mun*(別紋). *O-ho-ro-mun*(五葫蘆紋) was five-gourd-shaped patterns that form a circle, turning their narrow mouth to the center, and vines between each two gourds.

조선 말기 緞에 관한 研究

이은진* · 조효숙

이화여자대학교* · 경원대학교

현재 계승되고 있는 전통직물의 명칭과 특성에 대한 혼란은 조선 말기 직물의 정확한 이해 없이 전통직물을 일제강점기의 비체계적인 명칭을 기준으로 명명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사회로서의 마지막 시기이면서 동시에 근·현대의 기본이 되는 조선 말기 직물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서 조선 말기 緞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19C 말에서 20C 초까지 궁중에서의 직물 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의덕불기』와 『의복불기』를 분석해 보면 緞은 전체의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平織物이나 撚織物에 비하여 양적으로는 적으나, 緞이 조선 시대에 이르러 새롭게 보편화된 絹織物 종류이며, 현재 우리 전통직물의 주된 종류 중에 하나임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조선 말기의 문헌자료에 기록된 緞의 종류, 길이와 폭, 가치, 용도, 문양,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緞 유물에 타당한 명칭을 명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조선 말기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의복의 목록과 수량을 기록한 「불기」를 통하여 緞의 종류와 용도를 분석하였으며, 度支部에서 조선 말기 왕실과 각 관청, 각 지방의 감영과 부·군·현 등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정리한 「度支準折」을 통하여 1疋의 길이 및 폭과 가치를 분석하였다. 또 조선총독부에서 1915년에 간행한 「朝鮮叢報」를 통하여 緞 종류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말기의 여러 문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緞의 주된 종류는 雲紋緞·花紋緞 등 각종 紋緞과 庫緞, 貞緞, 모본단, 倭緞, 羽緞, 장단, 설한단, 양단, 양화단, 팽단, 한단, 오채단, 금단, 금선단 등이었다. 그 외에도 현재로서는 명칭의 유래와 특성을 알 수 없는 30여종

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緞이라고 칭한 직물 중에는 絹織物뿐만 아니라 絹綿交織, 綿毛交織, 綿織物, 毛織物 등도 있었다.

둘째, 「度支準折」의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緞 종류의 폭은 羽緞이 47cm, 冒緞·縉緞·禾緞이 56.4cm, 大緞·賞賜緞이 61.1cm였다.

셋째, 조직에 따른 각 직물의 10,000cm²당 가치를 비교하면 大緞〈紗〉大綾〈納〉紬의 순이었다. 이들 중 가치가 가장 낮은 紬의 가치를 1로 보고 각 직물의 가치를 비율로 나타내어 보면 15.5 : 10.5 : 7 : 2.5 : 1이었다. 따라서 緞은 당시 최고급 絹織物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가치가 紬의 15배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羽緞은 최고가의 緞이었다. 이처럼 緞이 고가인 것은 다른 종류에 비하여 필요한 원사의 양이 월등히 많았으며 조선시대에 들어 새로이 일반화된 직물로 적조법이 까다로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넷째, 緞은 상의, 하의, 포, 예복 및 관복 등 비교적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속옷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 특징적이다.

다섯째, 緞에 사용된 여러 가지 문양 중에서 본 논문에서 새롭게 규명한 것은 別紋과 五葫蘆紋이다. 먼저, 別紋은 직물의 종류나 용도 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문양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別紋은 우리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을 지칭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別紋의 형태는 처음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못환’字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못환’字 뿐만 아니라 주로 왕실에만 사용하였던 龍紋·鳳紋과 花紋·文字 등이 커다란 원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別紋으로 지칭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五葫蘆紋은 호로병박 다섯 개가 좁은 입구부분이 중심으로 향하게 원형을 이루도록 배치되고 각각의 호로병박 사이에는 넝쿨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의 문양이다.